

Dow, 독일 에틸렌 80만톤 건설 연기

유럽 수요약세로 2008년까지 미뤄 ... 52만톤 크래커 증설은 예정대로

Dow Chemical이 유럽의 에틸렌(Ethylene) 수요가 약세를 보임에 따라 독일 BSL(Böhlen-Schkopau-Leuna) 컴플렉스의 일부인 Böhlen 소재 에틸렌 80만톤 크래커 건설계획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2008년 완공 예정이었던 에틸렌 크래커 건설공사가 2008년으로 미뤄짐에 따라 2012년 경에 완공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존의 Böhlen 소재 에틸렌 52만톤 크래커는 예정대로 Debottleneck을 시행해 생산능력을 10만-15만톤 증설할 계획이다.

Dow는 미국의 천연가스 및 LNG(Liquified Natural Gas) 가격상승을 우려해 텍사스주 Seadrift 소재 Naphtha 80만톤 크래커 건설도 무기한 연기했다.

Debottlenecking 프로젝트 및 크래커 신설계획은 20억유로(23억달러)를 투자하는 BSL 프로그램의 일환이며, 앞으로 10년 안에 실행될 전망이다.

또 Dow는 에틸렌 파이프라인(Pipeline)을 건설해 BSL과 독일 Stade 컴플렉스를 연결함으로써 상업시장에서 생산된 에틸렌을 2개 공장부지에 공급할 수 있게 됐다.

BSL 컴플렉스는 체코의 Litvinov 소재 Chemopetrol 크래커와 파이프라인으로 연결돼 있어 에틸렌 5만톤을 공급받고 있다.

BSL-Stade 파이프라인이 2003년 10월 완공됨과 동시에 Dow Chemical은 Litvinov로부터 에틸렌 수입을 중단할 예정이다.

한편, Dow는 BSL 소재 PE(Polyethylene), VCM(Vinyl Chloride Monomer) 및 Styrene 플랜트의 생산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Leuna 소재 LDPE(Low-Density PE) 16만톤, Schkopau 소재 LLDPE(Linear Low Density PE) 21만톤 및 VCM 33만톤, Böhlen 소재 Styrene 28만톤 플랜트를 가동하고 있다.

Dow는 BSL 컴플렉스에 PE 플랜트를 신설해 에틸렌 크래커에 통합하고, 에틸렌 크래커가 완공되면 BSL-Litvinov 파이프라인을 통해 Chemopetrol에 에틸렌을 공급할 계획이다.

Dow는 스페인 Tarragona 소재 에틸렌 57만톤 크래커의 생산능력을 65만-68만톤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2004년 완공할 예정이다.

최근에는 쿠웨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투자규모가 총 12억-15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Chemical Journal 2003/09/15>